

‘新남방정책’ 핵심 국가 ‘베트남’에 공들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남아 국가 수출시장 개척 목표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 구축도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방문 중 발표한 정책으로 2020년까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나라들과의 교역수준을 중국과의 교역수준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국가와 연대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산업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쩌 쩌 안(Tran Tuan Anh)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2일 베트남 호치민 산업무역부 남부대표관에서 열린 제8차 산업공동위원회에 참석해 에너지, 원전개발, 산업기술 등 분야별 회의를 갖고 합의의사록 및 MOU 서명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공동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위원회를 열고 교역, 투자,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639억 달러 수준이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양국 산업 공동발전·기업 간 글로벌 밸류체인(GVC) 강화, 자

동차산업 공동발전 방안 모색, 우리 에너지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및 이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도 논의했다.

또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조직인 ‘코리아 플러스-베트남 플러스’ 설립, ‘한·베트남 FTA 공동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어 열린 한·베트남 FTA 공동위에서 양국 간 수입규제를 최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효 3년 차를 맞는 한·베트남 FTA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 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2018년 FTA 이행기구 개최계획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3일에는 아세안 한인상공인 연합회 결성식에 참석해 “우리 기업과 아세안 기업들이 모이는 한·아세안 글로벌 직업박람회를 정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인 동남아 국가와 인도가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1차 협상이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약 4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 이후 첫 협상으로 올해 RCEP 타결하기 위해 조속한 진전이 필요한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및 원산지 분야에 집중해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이노비즈協, 아프리카 식수프로젝트 후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이노비즈협회가 아프리카 주민들을 돕는 ‘신규 지하수개발 및 식수펌프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노비즈협회는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팀앤팀과 함께 물이 부족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포트로코 및 캄비아주 주민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 후원으로 시에라리온 현지에서 1년 간 식수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협회는 프로젝트를 통해 시에라리온의 열악한 식수 및 보건위생 환경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콜레라 감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아이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곳으로 가는 시간을 절약하는 등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프로



젝트 후원을 통해 아프리카 주민들의 기초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유일의 수자원 전문 국제구호개발 NGO 팀앤팀은 1999년 동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케냐, 남수단, 시에라리온에서 식수 지원과 긴급구호를 중심으로 총체적 지역자립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친환경 사업’ 위해 환경부와 맞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귀뚜라미는 환경부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질소산화물(NOx) 감소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가구당 16만원(국비 8만원 + 지방비 8만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보일러 교체 대수로 환산하면 1만2360대에 이른다.

귀뚜라미는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거꾸로 NEW 콘덴싱 보일러’와 ‘AST 콘덴싱 보일러’를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버려지는 열을 한 번 더 흡수



귀뚜라미는 환경부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하는 콘덴싱 기술을 통해 에너지 소비효율을 더욱 높이고,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최소화해 친환경 1등급을 구현했다.

특히, 국내 보일러에는 유일하게 가스 누출탐지기와 지진감지기가 탑재돼 지진과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 및 질식 사고로부터 안전하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귀뚜라미는 앞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발맞춰 콘덴싱 보일러 보급에 앞장서고 일반형 보일러에도 질소산화물 감소 효과가 우수한 저녹스 버너를 부착하는 등 친환경 1등급 보일러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모델에 이요원 발탁

오는 1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자사 브랜드인 ‘셀블룸’ 모델에 여배우 이요원(사진)을 발탁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과 처방 1위 제약사가 만든 화장품 ‘셀블룸’의 전문적인 이미지와 도회적이면서도 자신만의 영역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이요원의 이미지가 부합해 브랜드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이 선보이고 있는 신제품 ‘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은 줄기세포 배양액 1만ppm과 드래곤후르츠, 병풀과 같은 천연추출성분이 함유돼 외부 자극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등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획기적 제품이다.

이런 가운데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달 30~31일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가 1만6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요예측엔 총 845곳에 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해 72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계약 사업 부분의 안정적 수익성과 바이오 분야의 성장성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모가는 희망밴드가격(1만2000원~1만4500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총 공모금액은 331억원이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는 “주주 친화적인 공모가 제시로 투자자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의미가 있었고 향후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계약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해 진단, 예방, 치료, 관리 시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토털 헬스케어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경영자총협회

‘기업 혁신성장’ 주제로 전국 CEO 연찬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8~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혁신성장, 기업이 이끈다!’를 주제로 제 41회 전국 최고경영자(CEO) 연찬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는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다. 올해 연찬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하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또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주요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와 정부 경제 정책 방향과 기업혁신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다양한 분야 석학들의 강연도 마련된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협동조합·비영리법인 40곳 현장 점검

구비요건·인증규정 준수여부 등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등록단체 가운데 인증업무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40개 인증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단체표준 인증단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5일부터 향후 5주간이다.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점검반이 해당 단체를 방문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법령상 규정한 인증단체의 구비요건 ▲인증업무규정 준수 여부 ▲인증심사의 공평성 ▲사후 관리 등을 점검한다.

단체표준은 공공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정한 표준이다.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단체표준이 등록된 품목은 140개 단체의 4053개다. 이 중 40개 인증단체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에서 301개 표준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을 보유한 140개 전체 단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단체표준 적부(적격·부적격) 확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체표준은 제·개정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필요하다면 단체표준을 폐지할 수도 있다.

중기중앙회 김형락 단체표준국장은 “인증단체에서도 단체표준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체표준의 재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감으로써 단체표준이 선도적인 민간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